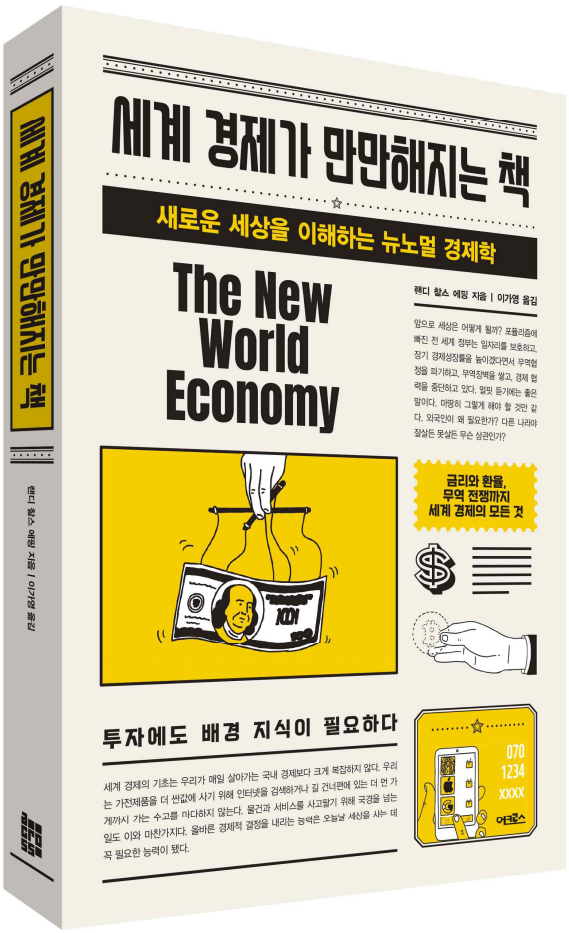

세계 경제가 만만해지는 책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뉴노멀 경제학

랜디 찰스 에핑 지음 | 이가영 옮김

2020년 7월 15일 출간 | 판형 147*215 | 412쪽 | 16,800원 | 분야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이야기
| ISBN 9791190030557

책 소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고슴도치, 「뉴닉」 고슴이 추천!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데 왜 달러 가격이 오를까? 외국 자본이 나의 대출이자를 좌우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바뀔까?
세계 경제는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세계 경제의 작동 방식을 모르면 해외 직구나 펀드 투자도 성공하기 어렵다. 인터넷으로 세상이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는 현실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이해는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유럽 경제의 중심부에서 25년 넘게 활동한 금융인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랜디 찰스 에핑은 이 책에서 누구나 알기 쉽게 세계 경제를 설명한다. 환율과 무역협정 등 세계 경제 기초부터 그린뉴딜 같은 미래 경제 트렌드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지식들을 따라가다 보면 경제의 맥락이 한눈에 보이는 경제 감각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경제학 이론은 끝났다!
새로운 융합경제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경제 교양서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고, 공장은 폐쇄되었으며, 주식시장이 휘청거린다. 아마존 나비의 작은 날갯짓 같은 아주 사소한 사건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거대한 태풍을 불러일으킨다는 '나비효과'처럼,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경제의 복잡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인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즘, 기존의 경제학 이론과 수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대형 투자회사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매일 수조 단위의 자금을 세계 이곳저곳으로 옮긴다. 그렇지만 이런 강력한 컴퓨터를 갖춘 투자회사들조차 왜 증시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폭락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2010년대 중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이라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붕괴 직전까지 폭락했을 때에도 이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럽의 투자은행과 국제 컨설팅 기업 등 유럽 금융의 중심부에서 25년 넘게 활동해온 금융 전문가 랜디 찰스 에핑은 이러한 오늘날의 경제를 '융합경제(fusion economy)'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핵융합 과정에서 수소 원자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듯,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에너지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선언이나 이탈리아의 정권 교체 같은 한 나라의 일은 어떻게 세계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데 왜 달러 가격이 오를까? 외국 자본이 어떻게 나의 대출이자를 좌우하는 걸까? 이처럼 전혀 관련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 경제다.
이토록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는 세계 경제이지만, 세계 경제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처럼 어렵지 않다. 2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된 베스트셀러 《초보자를 위한 세계 경제 안내서

(A Beginner's guide to the World Economy)》(국내 출간 제목은 '세계 경제 기본 지식 81')에서 이미 간결하고 명쾌한 설명으로 많은 독자들의 찬사를 받았던 랜디 찰스 에핑은 신작 《세계 경제가 만만해지는 책》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경제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투자에도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금리와 환율, 디지털 경제부터 무역 전쟁까지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세계 경제 지식

최근 경제경영서의 가장 큰 흐름은 '돈'이다. 경제가 불확실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해지자,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 재테크로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어디 부동산이 오른다', '어느 주식이 유망하다'는 주장들이 독자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수학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세계 경제의 작동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해외 직구나 펀드 투자도 무작정 따라 하다 손해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는 오늘날에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이해가 슬기로운 경제 생활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핫머니(hot money)'를 예로 들어보자. 핫머니는 시장 상황과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가장 수익률이 좋은 곳을 찾아 움직이는 해외 자금을 말한다. 대규모 해외 자금인 핫머니는 내 일상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인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시장의 경우 핫머니 투자자의 결정에 따라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핫머니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득을 얻기 위해 한국 같은 신흥시장 주식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다. 한국의 펀드매니저는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하던 주식의 일부를 팔아야 하고, 그러면 한국 정부는 통화 가치의 급락을 막기 위해 이자율을 높일 것이다. 이는 곧 한국의 자영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변동금리로 대출한 돈에 대한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 경제가 만만해지는 책》은 환율과 무역협정 등 세계 경제 기초 지식부터 그린뉴딜 같은 미래 경제 트렌드까지, 꼭 알아야 할 세계 경제의 핵심을 명쾌하고 생생한 사례로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한다. 지금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에 경제적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랜디 찰스 에핑은 '세계 경제는 거대하고 복잡한 일이니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할 뿐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이 스스로 경제에 밝아지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일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잡한 세계 경제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뉴스레터처럼 읽기 쉽고 재미있는 실전 경제학

세계 경제의 기초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국내 경제와 비교해도 크게 복잡하지 않다. 우리는 가전제품을 더 싸게 사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길 건너편에 있는 더 먼 가게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팔기 위해 국경을 넘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 책은 경제 개념을 일상 경험과 연관 지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주가지수는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위해 마트에서 몇몇 물건의 가격표를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하다. 차입매수(레버리지)는 지렛대를 떠올리면 쉬워진다. 지렛대를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힘들이지 않고 들어올리듯, 빌린 돈을 활용해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기법이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일러스트와 함께 본문을 구성해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장의 뒤에는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용어를 수록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래프나 수식 없이 경제의 기초 개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이 책은, 경제를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사람들이 일상을 지배하는 경제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영향력 있는 시민이자 소비자로 거듭나게 해줄 것이다.

저역자 소개

랜디 찰스 에핑 (Randy Charles Epping)
25년 넘게 국제금융 전문가로 일하며 런던, 제네바, 취리히에 있는 유럽과 미국 투자은행에서 임원을 역임했다. 노트르담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소르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예일대학교에서 국제 관계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스위스에 본사를 둔 국제 컨설팅 기업인 IFS Project Management AG의 임원이자, 유럽 및 전 세계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중앙유럽재단(Central Europe Foundation)의 회장을 맡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인 《초보자를 위한 세계 경제 안내서(A Beginner's Guide to the World Economy)》는 20개 이상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옮긴이 이가영
KAIST에서 전기 및 전자 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바른번역에서 과학과 경제 분야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 한국어판과 청소년 과학 교양 잡지 《OYLA》 번역에 참여했고, 역서로는 『적자의 본질』 『세계 경제가 만만해지는 책』 『유전자는 우리를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나』 『보석 천 개의 유혹』 『빅데이터 인간을 해석하다』 등이 있다.

책 속에서

P. 8
사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세계 경제의 기초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국내 경제보다 크게 복잡하지 않다. 우리는 가전제품을 더 싼값에 사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길 건너편에 있는 더 먼 가게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팔기 위해 국경을 넘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다. 올바른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오늘날 세상을 사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 됐다.

이 책은 지금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미래에 경제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서문>

P. 30
종이쪼가리든, 금붙이든, 비트코인 지갑에 표시된 숫자든 모든 돈의 역할은 세 가지다. 첫째, 돈은 교환을 매개해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팔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돈은 기업과 개인이 가치를 저장해 미래에 쓸 수 있게 해준다. 셋째, 돈은 회계 단위로 기능해 널리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준다.
-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돈의 개념>

P. 105
많은 사람이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는 주식과 채권으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관리하기가 어려워 보여서다. 하지만 사실 주식이나 채권 투자는 집을 사거나 휴대전화 요금제를 선택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기업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다. 회사 주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 회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데, 이를 지분이라고 부른다. 회사가 수익을 내면 주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본다. 수익이 났을 때 경영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주주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하나는 배당금 형식으로 주주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에 남겨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인데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대개 주가도 상승한다.
-<방구석에서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사람들>

P. 233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나라를 벌주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저 맛있는 라테를 팔아서 돈을 많이 쓰게 했다는 이유로 단골 카페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상상해보라. 게다가 세계 경제는 서로 연결돼 있어서 돈이 한곳에 그대로 머무르는 법이 없다. 인도가 콜센터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이 한국 방송사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한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브라질산 닭고기나 미국산 트랙터를 사는 데 쓰일 수도 있다. 결국에는 모두가 돈을 버는 것이다.
-<무역전쟁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의 속셈>

차례

Level 1. 새로운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기초 지식
1.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건 미국 경제가 아니다
2.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돈의 개념
3. 한 나라의 경제 위기는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될까
4. 국가도 살림이 어려우면 대출을 받는다

5. 국가 순위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

Level 2. 세계 경제는 어떻게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6. 미국 금리 인하가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
7. 환율을 결정하는 손은 따로 있다
8. 방구석에서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사람들
9. 수익률 높고 안전한 투자 상품을 판단하는 법
10. 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까
11. 그들이 움직이면 대출이자가 올라간다
12. 21세기 큰손들의 투자 전략

Level 3. 디지털 컨택트가 우리의 경제 생활을 좌우한다
13. 새로운 경제는 어떻게 기업을 변화시켰나
14. 보이지 않는 시장이 바꾼 세상
15. 모두의 일과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16. 디지털 경제의 절대반지
17. 친구가 될 것인가, 위협이 될 것인가
18. 원하는 것을 무한히 가질 수 있는 법

Level 4. 무역, 전쟁과 협력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19. 무역전쟁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의 속셈
20. 영국은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21.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이민자 탓일까
22.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경제 위기'를 외치는 까닭은
23. 세계화, 문제일까 해결책일까
24.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시장

Level 5.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경제의 뒷모습
25. 유럽연합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26. 세계를 움직이는 은밀하고 거대한 권력
27. 착한 투자가 가난한 나라를 살린다
28. 부패한 정치인은 부동산과 미술품에 투자한다?
29. 인터넷 세상 깊숙한 곳에 감춰진 어둠의 거래

Level 6. 밀레니얼부터 그린 뉴딜까지, 미래 경제
30. 기후 변화는 어떻게 경제를 위협할까
31. 물과 공기, 북극곰에 가격을 매겨야 하는 이유
32. 자본주의에도 종류가 있다
33. 21세기에도 노동조합이 힘을 가지려면
34.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는 국가 경제를 어떻게 바꾸는가
35. 경제 트렌드를 바꾸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

36. 노동이 줄어드는 시대의 일과 삶